

추도서

No. 1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선생님!
이제껏 더 나은 일점을 보았을 없고, 말로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평생 지치지 않을 뿐이요.
우리의 정말 영영 이별하시느 것인걸요?

대통령님이 계시어서 들을 했을 때, 선생님이 계시어서
희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 고향을 떠나신 후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두 번이 아닌 수많은 기회를
기적적으로 극복해 내신 대통령님이시기에
행복에 대한 표현도 상한 없이
'대통령님을 한번만 더 뵙고 싶어요' 이 희망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또 한번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의심치 않고 있던 우리에게 서거의 비보가
로 충격이 있습니다.

Date

MOORE CO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뜻이 잊어지었기 때문.
 대령님의 서거는 우리에게 이별의 슬픔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숙원과 나라의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내신
 평화와 통합의 비전이 지금 들들치럼 번지게 하고 잊는 곳은
 선생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존엄을 아십니까.

오랜 고난의 세월이 잊지기에 더욱 간절했던
 두 분이 종말 같이 잊는 기쁨도 잠시,
 그리고 사랑하고 포개 줬 아내 없이 살기 힘들다고 하고
 대령님께서 더 많은 애생을 혼자 두고
 홀로히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인이 대통령님 영전에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갈라진 나라들이 하나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념 분방국가에서 온갖 국민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통재정권 치하에서 살아가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총리께서 가슴을 겨누어도
 남에게서도 의연하게 웃어 내셨습니다.

잡곡에서 보낸 세화 530원, 가래먹은 600원
 국자로 갠찌내기 2원, 그리고 밥치, 산행선 등등으로
 늘 주위의 걱정이 너무 많았지만
 뜻을 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는 역사적 공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님을 인동호라 불렀습니다.
가슴에 작은 열매가 자라는 속에서 더욱 밝아오니,
인동호는 봄을 부르고 있었습니.

가장 힘든 곳에 계셨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원수대로, 애인대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느라 드리는 힘이 되어 드리리 믿겠습니다.
 제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난을 줄 믿겠습니다.
 이제 살펴보니 당신이 빈자리가 너무 큼니다.

과연 누가 살리라 우람한 거북이 더 나은 지지를 쳐줄지 알겠습니까?
 사해로 대외로를 잃은 우리도 이제 내외의 큰 일이 내외
 매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국인의 조국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당신께서 더 나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다섯번의 주를 고비를 넘기면서로
한번도 분사하신 리없이 양양하신 진리를 민주후사 잊음나리.

오랫 부하리 시련후에도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수평적 리관리를 이룩한 문종의 김치인 잊음나리.

사상 조국의 위란위기에 대란인국을 주해낸
준비된 대통령 잊음나리.

햇별 정책으로 삼리 복의 미움을 주에
삼복리상 리관을 이끄러나고
이 땅위에 동족상잔의 전쟁의 역주연을 걸어낸
민족의 지도리 잊음나리.

대통령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통로로 실현 하셨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평범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들을 모두 용서 하셨습니다

진실을 관대하고 강한 사랑만이 할수 있는
 '용서와 화해' 라는 귀한 가치를 남기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버라, 동티모르 등 세계의 인권들을 신장시키고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며
 남미북미 화해를 이루기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므로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는 당선의 뒤로 눈물속에 피어났음.
당선자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음.

당선이 임치되면 민주사회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며
진정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었음.

강대국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21세기형 세력으로 국가의 지평을 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예상부를 신설하며
국가지능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고
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함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들었음.

대통령님께서는 주변을 밝히려는 한국 외교를
국제무대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나라의 격을 높이셨습니다.

국민의 기상생각보장제를 도입하여
북지국가의 기쁨을 마련 하셨습니다.

책임이런이 한류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흘러가고,
점도점 4강의 해방이 세계인이 놀라고,

문화를 개방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도 대통령님의 우리 문화에 대한 해안과
인류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식견을 오래 기억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외생님.

대통령님께서는 저 곁동의 새마을을 잘로 유지하고 관리하셨음에.

태임후에도 민중의 내일과 근지구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의 새태를 구하고 곳곳에 평화를 심으셨음에.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님의 업적을 헤아리는 것이
대저보로써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를 가늠조차 할수 없는 대भाग입니다.
심로 높은 것들을 이루셨음에.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미래학'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만수대를 개해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개해 하시면 당선이 곁에 가질것을 믿습니다.

당선과 함께 했다면 지난날들은 진리 기대하고 행복으로 갔을텐데,
김대중이란 이름으로 부패한 것이니 이제 역사속에서 쇠락되도록

대통령님, 당선의 국민들이 우리 앞을
하늘나라에서라도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실로 드레거만
이제 놓아 드레거 할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 6.15 공동선언 9주(주)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님 이하로 여사님과 함께 비서관장님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시면서 뜻이 예매 밑을 하는
 것이 못했던 모습에 비서관이 될 줄은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습니.

대통령님 생신과 관련하여.

대통령님을 우리 곁에서 영영 떠나보내야 하는
 이 시기에 서로 만나

고향으로 왔던 사형선고 당시
 이하로 여사님과 함께 국영은행을 하러가기
 오히려 매우 가벼웠던 것 같습니

불 국민을 포쟁하고 사랑했던 선생님
이제 그 포쟁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날을 잊지 않고
이제 해님처럼 뜨거운 사랑의 푸른 여운
따로히 쉬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듯 선생님께서 포쟁하고 사랑하신 대로
이 화환에 여운이 당신께 영원을 축원하는
간절한 소원이기로 합니다.

부디 따로히 쉬소서

추도사

Final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의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뵈올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정말 영영 이별하시는 것인가요?

대통령님이 계셔서 든든했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 슬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두 번이 아닌 죽음의 고비를 기적적으로 극복해 내신 대통령님이시기에 병세에 대한 보도와는 상관없이 '대통령님을 한 번만 더 들려주시라는' 이회호 여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의심치 않고 있던 우리에게 서거의 비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 있어서인가요.

대통령님의 서거는 우리에게 이별의 슬픔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과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내는 화해와 통합의 바람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게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에 더욱 간절했던 두 분이 종일 같이 있는 기쁨도 잠시,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 없이는 살기 힘들다고 하신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여사님을 혼자 두고 홀연히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인이 대통령님 영전에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갈라진 남과 북의 산하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독재정권 아래에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희망
 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총과 칼이 가슴을 겨누어도 님께서는 의연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감옥에서 보내신 세월 5년 반, 가택연금 6년 반, 국외로 쫓겨 나고, 납치,
 사형선고 등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역사와 국민을 믿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님을 인동초라 불렀습니다.
 가을에 익은 열매가 겨울 눈 속에서 더욱 붉었으니, 인동초는 봄을 부르
 고 있었습니다.
 가장 험한 곳에 계셨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믿음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했
 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는 힘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도 당신이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살펴보니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큼니다.
 과연 누가 산보다 우람한 거목이 떠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대 원로를 잃은 우리는 이제 나라의 큰일이 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당신께서 떠나니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제 알겠습
 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번도 불의와는 타

협하지 않았던 진정한 민주투사였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불굴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이 땅위에 동족상잔의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라는 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버마, 동티모르 등 세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며, 남과 북의 화해를 이뤄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므로, 우리의 자긍심을 드높이셨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당신의 피와 눈물 속에 피어났습니다.

당신께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이 일구어낸 민주 사회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21세기형 새로운 국가의 지평을 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고속도로를 완성하여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주변을 맴돌던 한국 외교를 국제무대 한가운데로 끌고나가 나라의 격을 높이셨습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재임 시절에 한류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흘렀고, 월드컵 4강의 함성에 세계인이 놀라고, 문화를 개방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님의 우리 문화에 대한 해안과 인류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던 식견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대통령님께서 저 격동의 세월을 실로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민족의 내일과 전 지구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와 세태를 꾸짖고 곳곳에 평화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님의 업적을 해아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크기와 무게를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마지막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으면 당신이 곁에 제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지난날들은 진정 위대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김대중이란 이름은 불멸할 것이니 이제 역사 속에서 쉬십시오.

대통령님, 당신의 국민들이 울고 있으니 하늘나라에서라도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없는 시대가 실로 두렵지만 이제 놓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매일 밤 이회호 여사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목이 매어 말씀을 한참 잊지 못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벌써 그립습니다.

대통령님을 우리 곁에서 영영 떠나보내 드리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사형선고 당시 이회호 여사님과 함께 구명운동을 하던 때가 오하

추 도 사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의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뵈을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와 정말 영영 이별하시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계셔서 든든했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 슬픔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두 번이 아닌 죽음의 고비를 기적적으로 극복해 내신 대통령님이시기에 병세에 대한 보도와는 상관없이 '대통령님을 한번만 더 돌려주시라는' 이회호 여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의심치 않고 있던 우리에게 서거의 비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 있어서인가요.

대통령님의 서거는 우리에게 이별의 슬픔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과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내는 화해와 통합의 바람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게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에 더욱 간절했던 물이 종일 같이 있는 기쁨도 잠시,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 없이는 살기 힘들다고 하신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여사님을 혼자 두고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인이 대통령님 영전에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갈라진 남과 북의 산하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꿈을 키워던 저 남쪽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 방방곡곡에서 우리 국민들이 슬피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독재정권 아래에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장 먼저 보냈던 것을 5(3)로 보냈고,
간혹 3으로 보냈고 6(3)로 보냈고,
국외로 국외로 보냈고, 남지, 사형선 등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총과 칼이 가슴을 겨누어도 님께서는 의연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술한 투옥, 망명, 연금을 당하시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역사와 국민을 믿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님을 인동초라 불렀습니다.

가을에 익은 열매가 겨울 눈 속에서 더욱 붉었으니, 인동초는 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험한 곳에 계셨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믿음대로, 예인대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는 힘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살펴보니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큼니다.

과연 누가 산보다 우람한 거목이 떠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대원로를 잃은 우리는 이제 나라의 큰 일이 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당신께서 떠나니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번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진정한 민주투사였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불굴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고 이땅에 동북아시아의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낸

니다.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민족
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들을 모두 용서하
셨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버마, 동티모르 등 세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과 북의
화해를 이뤄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셨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당신의 피와 눈물 속에 피어났습니다.

당신께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이 일구어낸 민주 사회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국
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부를 신설하고, 정보고속도로를
완성하여 정보기술(IT)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주변을 맴돌던 한국 외교를 국제무대 한 가운데로
끌고 나가 나라의 격을 높이셨습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
다.

재임 시절에 한류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흘렀고, 월드컵 4강의 함성에
세계인이 놀라고, 문화를 개방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님의 우리 문화에 대한 해안과 인류의 미래를 정
확히 예측했던 식견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실로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으면 당신이 곁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925년 김대중이 없는 시대가 실로 두렵지만 이제 놓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매일 밤 이회호 여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목이 메어 말씀을 한참 잊지 못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은 진정 고단했으니, 부디 편히 쉬십시오.

교단행복과 지반으로 잇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주신다. 이리하여 주님께 바치는 이기로운 사랑과
 사랑과 사랑이 내 이리하여 사랑이 사랑과 사랑을 주신다
 사랑과 사랑을 주신다.

추도사

김대중 대통령님, 왜 누워계십니까? 김대중 선생님, 왜 말이 없으십니까?

대통령님이 계셔서 안심했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했는데 왜 우리를 두고 떠나려 하십니까?

하느님도 참 무심하십니다. '대통령님을 한번만 더 돌려주시라'는 이희호 여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고 왜 그리 서둘러 데려가십니까.

두 분이서 함께 오래오래 살자고 약속하셨다면 왜 혼자 먼저 가십니까.

지금 지구촌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인이 대통령님 영전에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갈라진 남과 북의 산하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꿈을 키웠던 저 남쪽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독재정권 아래에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총과 칼이 가슴을 겨누어도 넘겨서는 의연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술한 투옥, 망명, 연금을 당하시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역사와 국민을 믿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님을 인동초라 불렀습니다.

가을에 익은 열매가 겨울 눈 속에서 더욱 붉었으니, 인동초는 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험한 곳에 계셨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믿음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도 당신이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살펴보니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큼니다.

과연 누가 산보다 우람한 거목이 떠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만한 지도자를 언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의 큰 일이 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당신께서 떠나니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제 알
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번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진정한 민주투사였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불굴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준비된 대통령이었습
니다.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민족
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들을 모두 용서하
셨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바다, 동티모르 등 세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과 북의

화해를 이뤄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셨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셨고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당신의 피와 눈물 속에 피어났습니다.

당신께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이 일구어낸 민주 사회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부를 신설하고, 정보고속도로를 완성하여 정보기술(IT)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주변을 맴돌던 한국 외교를 국제무대 한 가운데로 끌고 나가 나라의 격을 높이셨습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재임 시절에 한류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흘렀고, 월드컵 4강의 함성에 세계인이 놀라고, 문화를 개방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님의 우리 문화에 대한 해안과 인류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던 식견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대통령님께서서는 저 격동의 세월을 실로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민족의 내일과 전 지구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와 세태를 꾸짖고 곳곳에 평화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대통령님의 업적을 해아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크기와 무게를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우리 국민은 대통령님의 우리 문화에 대한 해안과 인류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던 식견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대통령님께서 저 격동의 세월을 실로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민족의 내일과 전 지구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와 세태를 꾸짖고 곳곳에 평화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대통령님의 업적을 헤아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크기와 무게를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마지막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으면 당신이 곁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면 당신은 하늘 저편에서 무지개로 뜰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했던 지난날들은 진정 위대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김대중이란 이름은 불멸할 것이니 이제 역사 속에서 쉬십시오.

대통령님, 당신의 국민들이 울고 있으니 하늘나라에서라도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김대중이 없는 시대가 실로 두렵지만 이제 놓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매일 밤 이회호 여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목이 메어 말씀을 한참 잊지 못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벌써 그립습니다.

늘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생님. 이제 그 존경과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지난날은 진정 고단했으니, 부디 편히 쉬십시오.